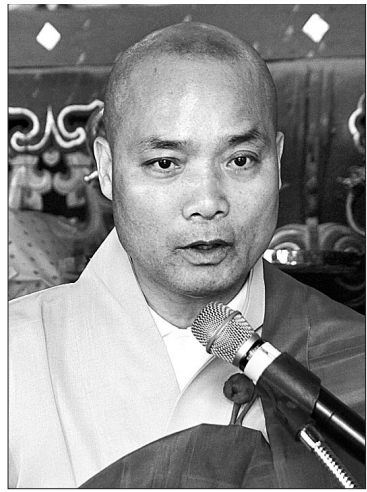


### 고창 선운사 17대 주지 경우스님 취임



# “원융화합으로 새 역사 열자”

소통과 나눔 공동체 비전 제시  
말사지원 확대, 특성화 공약  
진신식 비용 장학금 전환해  
“백년대계의 지혜 모을 것”



경우 스님의 주지취임 진신식은 고불법회 형식으로 간소히 진행됐으며 남은 비용은 관내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환 됐다.

수행과 복지 문화공동체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창 선운사의 제17대 주지로 경우 스님(사진)이 정식 취임했다. 선운사는 4월 17일 대웅보전에서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선운사 제16대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역대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해산 스님, 법현 스님, 범려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박우정 고창군수 등 300여명이 동참해 경우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고불 법회는 선운사 합창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명종 5타, 법만 스님의 이임사, 감사패·화환전달, 경우 스님 행장소개, 고불본 낭독, 장학금 전달,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17대 주지에 취임한 경우 스님은 고불본에서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불교로 거듭나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로 함께해야 한다”며 “종단과 교구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세간에 희망을 전하는 청정한 수행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큰 위신력으로 지켜달라”고 발원했다. 스님은 이어 취임사를 통해 “선운사는 승가공동체의 위의를 확립하고 반선반농의 수행가풍아래 지역불교의 귀감이 되고 있는 승가이다”며 “이는 전임 주지스님을 비롯한 문중스님들의 지지와 성원아래 원융화합정신으로 살아온 스님들의 결과”라고 대중스님들께 감사인사를 표했다.

스님은 또 “교구화합, 말사지원확대, 승가노후복지 강화, 표교특성화 전략 및 승가교육체계화, 본사위상강화 등 중앙총회의원과 말사 주지를 역임하며 평소 소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백년대계라는 공동 탑을 쌓는 심정으로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임기내 선운사 화합에 앞장 설 것을 밝혔다. 경우 스님은 “한국불교와 교구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이 최선”이라며 “화합된 승가와 사부대중의 힘으로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열고 이에 앞장서는 선운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6대 주지 법만 스님도 이임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경우 스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지 진신식은 고불법회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경우 스님은 고불법회서 진신식 비용을 절약해 마련한 1천만원의 기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고창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박우정 고창군수에게 전달했다. 한편, 선운사 17대 선운사 주지에 취임한 경우 스님은 1985년 태어 스님을 은사로 입산출가해 1989년 자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1998년 순창 만일사 주지, 2005년 총무원 호법국장, 2009년 총무원장 사서실장, 2011년 장경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15·16대 중회의원과 종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담양 죽림정사 주지 지홍 스님 취임

비구니 수행도량 담양 죽림정사 신임 주지로 지홍 스님이 취임했다. 4월 19일 ‘죽림정사의 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진신식에는 마하무량사 회주 암도 스님, 최형식 담양군수, 홍광표 동국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100여 대종들이 동참했다. 이날 3대 주지로 취임한 지홍 스님(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사람은 저마다 희망과 꿈이 있다. 죽림정사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출가발심 때부터 고민한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1부 진신식에 이어 2부 무상 스님의 노래 공연과 국악인 국근섭 씨의 판소리 공연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남 담양 추월산에 위치한 죽림정사는 1988년 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곳에 정착해 손수 터를 닦고 불사를 진행해 창건한 수행도량으로, 현재는 선방과 극락전, 요사채 등의 전각을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 광덕사 헤민 스님 초청강좌

학부모를 위한 마음치유강좌가 지난 4월 19일 광주 서구 광덕사에서 개최됐다.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며 대표적인 힐링멘토로 꼽히는 헤민 스님이 강사로 나선 이날 강좌에는 불자와 학부모 500여 명이 참여했다. 헤민 스님은 이날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수행이 필요하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없다. 이에 끄달리지 말라”고 법문했다. 행사를 개최한 주지 효진 스님은 “현대



사회는 마음치료가 필요한 시대”라며 “많은 수행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보살 원력으로 장병 안전을”

## 완주 송광사, 제35사단 무사고 기원법회 개최

최근 전주에서 전북 임실군으로 부대가 전을 완료한 육군 35사단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부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육군 35보병사단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이날 불보살님전에 큰절을 올리고 힘찬 목소리로 발원문을 낭독하고 부대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고 밝고 행복한 부대가 될 것을 서원했다. 송광사는 4월 18일 최근 전북 임실군으로 부대 이전을 완료한 육군 35보병사단(사단장 최창규 소장)을 방문해 ‘35사단 안전과 발전을 위한 무사고 기원 대법회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과 주지 법진 스님을 비롯한 송광사 대중스님들과 한광수 송광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불자, 35사단 각급 지휘관과 장병 400여명이 동참해 부대 안전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부

대안전 기원기도, 발원문 낭독, 사단장 인사말, 청법가, 법어, 어울림 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나 가치관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군”이라며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웠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 자비, 인욕, 비움을 바탕으로 함께 군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평소 회주스님의 군 포교에 대한 원력을 받들어 지역 군법당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법회를 통해 35사단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 그리고 복무중인 장사병들의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해 열심히 기도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직접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35보병사단이 사고없는 안전한 부대가 되도록 불보살님께 기원한다”며 “용



전북 임실 육군 35사단에서 열린 발전기원 법회에서 완주 송광사 스님들이 축원기도를 하고 있다.

사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군 생활 무사히 마치고 군 생활을 통하여 더욱 더 자신감과 용기가 충만하고 적극적인 청년으로 단련되어 조국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한 국민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법회 후에는 차복순선생을 비롯한 전북도립국악원 단원들의 대금산조, 시나위 합주, 민요 공연과 구ارئ 선생의 살풀이 춤이 이어져 장병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이날 평소 부대안전과 장병들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법회를 열어준 법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사찰음식 전

문가 대안스님의 지도로 송광사 봉사단체인 종남회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잎 밥 등 사찰음식이 저녁공양으로 전 장병들에게 제공됐다. 평소 맛보기 어려운 사찰음식을 군대에서 처음 맛본 장병들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며 모처럼 맛본 진수성찬에 놀라움을 표했다. 한편 전북 완주군에 자리잡고 있는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는 매일 육군 35보병사단 호국 중경사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임실 제6탄약장 호국 장영사, 익산 부사관학교 호국 중국사 법당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전시회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 갤러리는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이남의 기획 ‘사랑해 전’을 개최한다.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이남 작가의 기획으로 마련된 이날 전시회는 강운, 김상연, 김해성, 박일규, 손봉채, 송필용, 윤남용, 이매리, 이이남, 이정록, 정광희, 정은하, 한희원 등 13인의 작가가 초청됐다. 이이남 작가는 “좋은 작품을 통해 세상을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작품을 통해 현실을 꼬집고자 한다”며 “선후배 작가들



이 한데 뜻을 모은 ‘사랑해 전’은 지역 작가들이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완주군, 훼손 우려 봉림사지 긴급 발굴조사

전북 완주군은 훼손이 우려되는 봉림사지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5월 1일부터 시작했다. 완주군은 봉림사지 일대에 무분별하게 분묘가 조성되는 등 훼손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 문화재청에 봉림사지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 사업을 신청해 국비 7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봉림사지는 나말여초(羅末麗初) 시기의 사찰로 추정됐지만 최근 관련 연구에서 후백제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이더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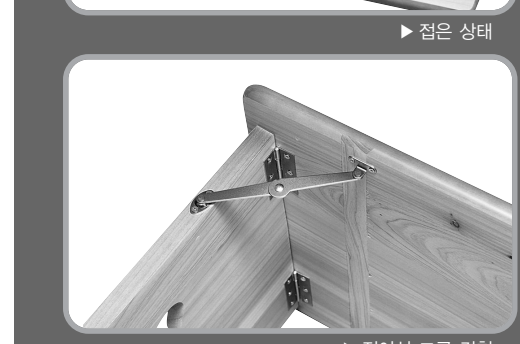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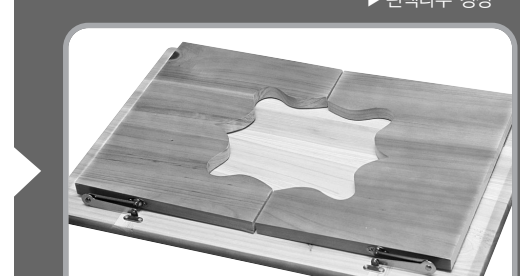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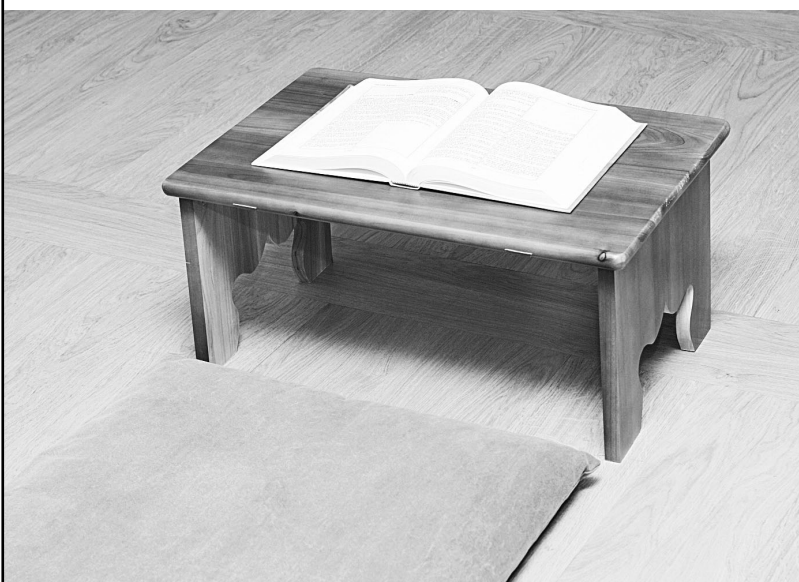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이현의 기도
  -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밤이 꿇음을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기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의 기도
  - 10. 장영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빈손으로 왔다
  - 13. 사물을 쓸 때는
  -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고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버려라
  - 19. 나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전연 1
  - 22. 광명전연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본
  - 25. 예불문
  - 26. 이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한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정진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참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경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길로법을 전하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상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돌로 푸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명본

##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엮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 D40cm ×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